

남북 접촉지대의 기원으로서 1963년 체육회담 고찰*

최진환**

1963년 로잔과 홍콩에서 진행된 남북 체육회담은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이 제도화된 공간에서 공식적으로 만난 첫 접촉지대이었음에도 기존의 마음통합 연구에서는 그 의미를 다루지 못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IOC 서신과 당시 외교부 문서를 통해 1963년 체육회담의 성사 배경과 전개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도적 남북 접촉지대의 기원과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963년 체육회담은 외형상 남북 NOC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였으나 실제로는 남북의 고위급 인사들이 관여하여 당국자 간 접촉지대를 최초로 형성한 회담이었다. 이는 남북대화라는 접촉지대를 통해서 남북 화해와 통합을 끌어내려는 본연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단일팀 구성을 통해 국제사회에 진출하려는 북한과 북한을 인정할 수 없었던 남한의 마음 체계가 충돌하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이 회담은 남북의 첫 접촉지대의 기원으로서 의미가 있고,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접촉지대, 마음통합, 마음체계, 체육회담, KOC, DPRK NOC, 단일팀

*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과 북측 인물 정보에 도움을 주신 김광운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북 마음통합 연구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신 이우영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해 이 글을 헌정합니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1. 서론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은 처음으로 단일팀을 이루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었다. 분단 후 처음으로 민단과 조총련이 함께 선수단 응원과 환영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회의도 하고 만찬도 하면서 서로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일 수 있었다. 남북이 국내에서 이룬 화해와 통합의 시간을 해외 동포들이 더 뜨겁게 맞이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 남북의 정치는 긴장과 대결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과거로 회귀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부분적으로 단일팀을 이루며 다시 평화 분위기를 조성에 기여했지만, 2019년 북미 간의 정치 협상 결렬로 다시 군사적 긴장과 대결 국면으로 회귀했다. 이런 국면이 반복되며 남북 체육 교류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교류는 남북이 어느 날 갑자기 단일팀을 구성하고 민족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남북 회담이라는 역사적 사건들이 체육 영역뿐만 아니라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등 간단치 않게 긴 시간을 소요하며 진화 과정을 거쳤다.

분단 후 남북 대표들의 최초 접촉은 전쟁 직후인 1954년 제네바 회담이었다. 이 회담은 냉전질서가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강대국 간의 정치협상의 장이었다.¹⁾ 이 자리에서 남북의 대표가 따로 만나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을 위한 회담은 없었다. 따라서 공식적인 당국자 간 접촉시대의 출발점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 1954년 제네바 회담은 '코리아 문제와 '인도차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정치협상의 장으로 강대국 간의 다자간 회담에 남북 대표가 참석한 것이었다.

남북의 공식적 접촉과 회담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대상으로 한 대다수의 연구를 살펴보면 1971년 적십자 회담을 최초로 기록하고 있다. 강혜경에 따르면, 1970년대 남북 적십자 회담이 남북 대화의 원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²⁾ 정우곤도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이 남북 대화와 협상의 시작으로 보았다.³⁾ 정기웅의 연구에서도 남북의 만남을 정례적으로 시작한 것은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찾고 있다.⁴⁾ 김연철의 '70년의 대화'에서도 1971년 적십자 회담을 첫 대화라고 소개하고 있다.⁵⁾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남북관계관리단 홈페이지에서도 회담별 전체 자료가 1971년 8월 20일 남북 적십자 파견원 제1차 접촉부터 시작하고 있다.⁶⁾

이 모든 자료에서 1963년 체육회담은 남북 대화의 첫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왜일까?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며, 남북 대표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1963년 체육회담의 제도화된 '남북 접촉시대의 기원'으로서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1963년 로잔과 홍콩에서 4차례에 걸친 남북 체육회담이 열렸고 이와 관련된 연구도 있다.⁷⁾ 두 회담 모두 외형상으로는 민간 영역의 대표들이 만난 회담으로

2) 강혜경, “남북대화 원형으로서의 19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09호(2021), 289쪽.
 3) 정우곤, “남북회담 50년 소고: 현황과 발전방향,” 『통일문제연구』, 제33권 2호(2021), 40쪽.
 4) 정기웅, “남북대화 연구,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분석 틀 구축을 위한 시론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제26권 1호(2022), 142쪽.
 5) 김연철, 『70년의 대화』(파주: 창비, 2018).
 6)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https://dialogue.unikorea.go.kr>(검색일: 2024년 4월 10일).
 7) 최진환, “남북 스포츠 분단의 역사적 함의,” 『한국체육학회지』, 제59권 3호(2020); 김재우, “동경올림픽대회(1964)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1차 홍콩 체육회담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2권 4호(2013).

〈표 1〉 1963년 체육회담 개요

회담 횟수	날짜	회담 주제와 성사 여부	회담 주제
첫 번째(1차 로잔 회담)	1963.01.24.	IOC, 남, 북 NOC (삼자, 성사)	단일팀 구성
두 번째(1차 홍콩 회담)	1963.05.17~06.01.	남, 북 NOC(양자, 성사)	
세 번째(2차 홍콩 회담)	1963.07.26.	남, 북 NOC(양자, 결렬)	
네 번째(2차 로잔 회담)	1963.08.19.	IOC, 남, 북 NOC (삼자, 결렬)	

당국자 회담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주저함이 있으나, 강혜경에 따르면 적십자 회담의 경우 실제로는 당국의 의도로 진행되었고, 중앙정보부와 밀착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국 간 대화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회담 진행 주제나 참석자들로 볼 때 양측 모두 적십자사를 표면상 앞세웠으나 당국 간 대화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⁸⁾

제도적 남북 접촉지대로서 적십자 회담을 연구한 윤철기·양문수의 글에서도 1970년대 이전까지는 미·소의 냉전구조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쳐 남북 간에 실질적인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 대화와 교류의 시작을 1971년 적십자 회담으로 보았다.⁹⁾

그러나 남북은 〈표 1〉과 같이 이미 1963년에 한바탕 시끄럽게 대화와 교류를 시작해 당국 차원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대응했던 역사가 있었다.

이우영은 남북 접촉이 갖는 의미를 “남북한의 제도적, 비제도적 접촉 지대가 한반도 미래의 거울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접촉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연 발생적 상호작용의 경험이 남북한 사회 통합을 기획

8) 강혜경, “‘남북대화’ 원형으로서의 19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 322쪽.

9) 윤철기·양문수, “북한 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지대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6권 2호(2013), 259쪽.

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북한적 마음체계의 기초자료”라고 보았다.¹⁰⁾ 그래서 체육회담과 같은 공식적 접촉시대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은 남북 통합을 위한 마음체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했다. 또한 60년이 넘는 회담 역사를 거쳐 오며 나선형의 변화와 발전을 보인 남북 회담이라는 제도화된 접촉 공간에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우영은 마음체계의 구성과 변화에는 기억의 재구성이 필수적이라며, 기억은 정보와 경험이 입력되고 저장되며 검색하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마음의 지층을 형성하는데 이 과정이 정치적, 즉 선택적이고 해석적인 과정이라고 했다.¹¹⁾ E. H 카는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마음을 통과하면서 항상 굴절되는 것이라며 기록과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¹²⁾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 대화의 시작으로 보는 1971년보다 이전에 이미 남북 대화의 전사(前史)가 존재했다는 점에 주목해, 제도화된 남북 접촉 시대의 기원과 회담의 의미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아카이브센터인 OSC(Olympic Studies Centre)에서 수집한 당시 서신과 회의록, 그리고 외교부에서 생산한 문서 등 1차 자료를 대조해 가며 회담 상황에 관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기록에 담긴 의도와 마음을 읽어 내는 시도를 하려고 한다. 이는 제도화된 접촉시대에서 남북의 마음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10) 이우영-구갑우, “남북한 접촉시대와 마음의 통합이론,” 『현대북한연구』, 제19권 1호(2016), 270, 292쪽. 마음체계에 관한 개념이나 이론적 설명은 이 논문 참고.

11) 위의 글, 303~304쪽.

12) E. H. 카(E. H. Carr), 『역사란 무엇인가』, 김택현 옮김(서울: 까치글방, 2011), 38쪽.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 회담 추진 배경

1) 이승만 정부

1947년 KOC(Korea Olympic Committee)는 IOC에서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NOC(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가올림픽위원회)로 승인받았다. 당시 IOC 회장이었던 브룬디지(Avery Brundage)는 여운형과 이원순에게 서신을 보내 이 승인은 한반도가 통일되기 전 잠정 승인(provisional recognition)이며, 북한 지역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전했다.¹³⁾ 그러나 북한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올림픽 참가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다가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 소련이 처음으로 참가하면서 북한도 올림픽 참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IOC는 1956년 제14차 집행위원회에서 1국가 1위원회 원칙에 따라 이미 KOC를 승인해 주었으니, 따로 승인을 해줄 수는 없고 독일처럼 남북이 함께 팀을 이루어 나오는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¹⁴⁾ 이에 북한은 독일과 우리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고, 압도적 다수의 체육인이 남한 선수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었다.¹⁵⁾

위 서신 내용 중 '압도적 다수의 체육인'이라는 표현은 해방 후, 북한이 소련 사회주의 체육 모델을 받아들여 체육을 대중화할 것을 강조한

13) IOC, OSC, Avery Brundage Collection, Film 77-06/ File number, 164, 166.

14) IOC, OSC, PRK OSC List of Archives' Files: D-RM01-COREN/008, File number, 678.

15) 위의 자료, File number, 677.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⁶⁾ 내각 안에 체육지도위원회를 만들고 대중 체육 조직과 전문 체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펼쳤다. 학교, 직장, 군대 등 모든 영역에서 체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적 체계를 갖추었고, 국제 대회 참가에도 관심을 넓혀갔다.¹⁷⁾

그러나 북한은 독자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었고, 남한과 함께 팀을 이루어야 하는 운명이었다. 당시 이기붕은 남한 최초의 IOC 위원이 되었고, 북한과의 단일팀을 거부했다. 그는 남북은 현재 DMZ 사이에 전쟁 중이고, KOC는 남한뿐만 아니라 500만 명의 북한 피난민들도 포함해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다면서 KOC 승인 당시 IOC 권고 사항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¹⁸⁾ 이는 IOC가 북한 지역 선수까지 포함하라는 권고를 KOC가 남한 내로 범위를 좁혀서 해석한 것이었다. 당시 이기붕은 북한과는 어떠한 통신 수단도 없어 북한 NOC와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단일팀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IOC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북한의 경우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IOC 제안에 따라 남한과 단일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은 해방 후 처음으로, 1957년 6월 10일 자로 유일한 조선팀을 구성하자는 전신을 남한에 보냈다.¹⁹⁾ 이 제의가 공식적인 첫 제의이다. 이와 관련된 『로동신문』 기사 제목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처음 등장한다. 그리고 ‘북남’에서 ‘남북’으로 순서도 바꿔 표현했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

16) 조남훈, 『조선체육사 2』(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2), 64~65쪽.

17) 위의 책, 141~143쪽.

18) IOC, OSC, Avery Brundage Collection, Film 35-10/ File number, 10, 35~36; 외교부, 1964년도 동경올림픽 남북한단일팀 구성문제, 전4권(V.1 1962), 184쪽.

19) “남북 조선 올림픽 위원회를 연합하여 유일한 조선팀을 구성하자: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올림픽 위원회에 제의,” 『로동신문』, 1957년 6월 11일.

다. 북한도 1957년 8월에 IOC로부터 남한과 단일팀을 구성하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잠정승인을 얻지만, 남한의 협조 없이는 단독으로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57년 12월 종파사건에 연루된 공선홍이 물러나고 올림픽위원장으로 등장한 홍명희가 12월 18일 이기붕에게 단일팀 구성을 제안하는 서한을 보냈다.²⁰⁾ 이 서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가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 앞으로 보낸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수·발신자에서 서로의 국호를 사용한 최초의 사례였다. 이때 사용된 국가 대 국가의 관계 설정은 1963년 7월 홍콩 회담에서 북측 대표가 도착 성명을 발표할 때 ‘National Un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²¹⁾ 남측 대표가 회담 결렬의 명분으로 삼을 만큼 민감한 주제였다. 남한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은 국가라는 지위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던 것이다.

당시 이기붕의 공식 직함은 국회의장이었지만, 이승만 정부의 실질적 이인자였으며 한국을 대표한 IOC 위원이기도 하였다. 홍명희는 해방 후 월북하여 내각 부수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겸임하면서 DPRK²²⁾ NOC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체육인이 아니었음에도 남북을 대표하는 NOC 위원장으로 남북 단일팀 문제에 관여하는 직책을 담당하였다. 그만큼 남북 단일팀 구성 문

2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 『로동신문』, 1957년 12월 19일; 최진환, “남북 스포츠 분단의 역사적 함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승인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제59권 3호(2020), 4-5쪽.

21) IOC, OSC, Avery Brundage Collection, Film 77-07/ File number, 176.

22) 본 연구에서는 맥락과 문맥을 고려하여 북한, 북, 북측,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으로 표현하고 남한, 남, 남측, 대한민국 등의 표현을 대칭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제는 단순히 민간 기구의 체육인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민감한 사항이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요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57년부터 IOC 회의록에는 ‘코리아 문제(Korea Question)’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²³⁾ IOC 내에서 ‘코리아 문제’ 논쟁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 자격을 주자는 세력과 북한에 독립적인 참가 자격을 줘서는 안 된다는 세력이 충돌하는 현상이었다. 소련의 IOC 위원 안드리아노브(M. Constantin Andrianov)는 주도적으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 자격을 주자는 주장을 했고,²⁴⁾ 미국 출신 IOC 위원장 브룬디지(Avery Brundage)는 남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서로의 입장이 나뉘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단일팀 구성 제안이 이어졌지만, 남한은 북한과 어떤 접촉도 거부하며 회담을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결국 1960년 로마 올림픽 단일팀 구성이 무산되자, IOC 내의 공산권 NOC 위원(소련,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독립적인 NOC를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들은 올림픽 정신을 인용해 참가자들에게 종교적, 정치적, 인종적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남한이 계속 거부한다면 KOC를 IOC에서 제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²⁵⁾

23) IOC, OSC, Hard disk, "Session," 1957-Bulgaria/02-Proces-verbal-eng.pdf, p. 5. 코리아 문제(Korea Question)는 1961년 IOC 총회 회의록에 등장하는데 초기에는 북한 올림픽 참가문제가 이슈였다가, 1964년 도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는 북한의 국호 승인문제로 이슈가 변했다. 정연철, "1954년 제네바 회담과 동북아 냉전 질서," 『아세아연구』, 제54권 1호(2011), 193쪽. 정연철은 Korea Question을 한국 문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의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코리아 문제'로 번역하는 적합하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24) IOC, OSC, Hard disk, "Session," 1963-Baden-Baden/02-Proces-verbal-eng.pdf, p. 8, 10, 19.

2) 박정희 정부

KOC는 1961년 박정희 군사 정부가 들어서고 혼란한 상황에서 IOC의 단일팀 구성 요구에 대해 이승만 정부와 같은 반공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당장은 어떤 답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IOC에 모든 논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²⁶⁾ 그러나 계속되는 ‘코리아 문제’가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전면적으로 대두되었다.

IOC 회장 브런디지와 IOC 사무총장 오토마이어(Otto Mayer)는 ‘코리아 문제’에 관하여 견해가 달랐다. 브런디지는 초기에는 남한과 친분을 쌓아가며 남한 입장을 수용하려고 노력했으나, 점점 북한의 올림픽 참가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태도로 바뀌었다. 오토마이어는 초기부터 북한의 올림픽 참가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견해였다.

1961년부터 더 적극적으로 단일팀 구성에 매달린 북한은 오토마이어에게 집행위원회 회의와 IOC 총회가 개최될 때마다 ‘코리아 문제’를 의제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남한은 이상백, 월터 정²⁷⁾ 등을 앞세워 총회에서 ‘코리아 문제’가 총회 의제로 상정되지 않도록 브런디지에게 요청하는 입장이었다.

공산권 IOC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남한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북한 NOC를 독립 승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갔다. 계속되는 공산권 위원들의 압

25) IOC, OSC, Avery Brundage Collection, Film 35-10/ File number, 14-15.

26) IOC, OSC, Avery Brundage Collection, Film 35-11/ File number, 69-70.

27) 이상백과 월터 정은 1947부터 IOC와 서신으로 소통을 담당. 이상백은 1951년 대한체육회 부회장, 1960년 KOC 회장 직무 대행, 964년 10월 도쿄 IOC 총회에서 IOC 위원으로 선출. 월터 정은 1941년 미국태평양 7 항공대 고문, 미국 육군, 태평양지구 고문으로 일함.

박과 홍명희의 설득으로 IOC는 1962년 6월 모스크바 총회에서 남한에 9월 1일까지 단일팀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최종 시한을 통보하였다.

남한은 최종 시한이 담긴 서신을 반자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단일팀 구성 문제에 대한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²⁸⁾ 그리고 육군 중장 출신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이었던 이주일을 KOC 회장에 임명하고, 부회장에 육군 소장 출신 이효, 한국일보 사장 장기영, KOC 이상백을 임명하였다.²⁹⁾ 박정희 정부에서는 KOC의 주요 보직을 정부의 주요 인사에게 맡겨 IOC와 접촉하며 '코리아 문제'를 대처하고자 했다.

최종 시한보다 이른 8월 14일에 KOC는 남북 단일팀 구성에 동의한다는 서신을 오토마이어에게 보냈다.³⁰⁾ 홍명희도 KOC의 유일팀 구성에 동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관계자가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해결하지 못할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³¹⁾

그 이후, 북한은 단일팀 구성을 찬성한 남한 정부를 향해 단일팀 구성을 위한 대표자 회담을 하자고 3차례(9.26., 10.19., 12.15.)나 제안하였지만, 남한 정부는 제안을 모두 거부하면서 오직 IOC와만 서신을 주고받으며 접촉이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³²⁾ 이유로는 남북이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전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남한은 받을 수 없어 못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남한 언론에는 북한의

28) 외교부, 1964년도 동경올림픽 남·북한단일팀 구성문제, 전4권(V.1 1962), 6쪽.

29) IOC, OSC, Avery Brundage Collection, Film 35-11/ File number, 59-60.

30) 위의 자료, File number, 61.

31) “남북 조선 유일팀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에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 전문,” 『로동신문』, 1962년 9월 6일.

32) IOC, OSC, Avery Brundage Collection, Film 77-06/ File number, 22-23; Film 77-11/ File number, 171-172.

단일팀 구성 제의 소식이 그대로 실렸으나, 남한 정부에서는 공식적 루트가 없어 북한의 제안을 받지 못했다고 IOC에 계속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회담 장소로 판문점, 평양, 서울을 제안했지만, 남한은 판문점은 군사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며 거절했다.³³⁾ 이에 IOC는 대안으로 제3국 로잔, 홍콩, 랑군을 제안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오토마이어는 북한을 단독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북한의 노력을 선한 의지(Good Will)로 표현했다. 반면, 남한과는 정치인과 토론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으며, 남한은 단일팀을 구성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³⁴⁾

결국 오토마이어는 홍명희가 12월 5일에 마지막으로 제안한 남북 단일팀 구성 대표자 회담이 무산될 상황이 되자, 더 이상 단일팀 구성 회담은 없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브룬디지에게 더는 남한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터 정이 12월 5일에 IOC를 방문하여 오토마이어를 만나고 돌아와 쓴 보고서에는 단일팀 구성을 못하는 변명을 하기에 이미 늦었으며, IOC는 단일팀 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³⁵⁾ 어떤 식으로든 선택해야 하는 KOC는 12일에 IOC에 전보를 보내 1963년 1월 21~25일 사이에 북쪽 대표와 만날 용의가 있다고 알렸다. 그리고 회의와 관련된 직접 경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대표는 쌍방 5명 실무자급으로 하며, IOC 중재하에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알렸다.³⁶⁾ IOC는 이를 북한에 전했고, 북한은 이를 즉각 받아들여

33) IOC, OSC, Avery Brundage Collection, Film 77-06/ File number, 32.

34) IOC, OSC, Avery Brundage Collection, Film 77-06/ File number, 20.

35) IOC, OSC, Avery Brundage Collection, Film 77-06/ File number, 16; 외교부, 1964년도 동경올림픽 남북한단일팀 구성 문제, 전4권(V.1 1962), 127쪽.

36) 외교부, 1964년도 동경올림픽 남북한단일팀 구성문제, 전4권(V.1 1962), 127쪽.

1963년 1월 24일 스위스 로잔에서 해방 후 처음으로 남북 대표가 만나는 접촉지대가 형성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더는 물리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서야 IOC의 제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만큼 단일팀 구성에 관한 의지가 없었다. 이와 동시에 단일팀 구성 회담에 대비한 정보 수집에도 착수했다. 외무부는 해외에 파견된 대사들로부터 단일팀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계속 분석하였고, 서독과 동독의 사례도 면밀하게 조사하여 남한이 단일팀 구성을 했을 시에 어떤 이득이 있을지 판단 근거로 활용했다.³⁷⁾ 남한 정부는 북한과의 단일팀이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명분은 있으나, 반공이 국시인 냉전 상황에서 국제 사회가 보는 앞에서 북한과 마주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올림픽 정신을 앞세워 제안한 단일팀 구성을 국제 사회가 보는 앞에서 거부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1963년 로잔 회담을 수락하였다.

3. 회담 전개와 내용

1963년 남북 체육회담은 총 네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중 첫 번째와 네 번째 회담은 IOC 주재하에서 진행된 회담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회담은 남북 당사자끼리 직접 만난 최초의 회담이었다. 실질적인 회담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진행되었다. 세 번째는 남한의 일방적 결렬 선언으로 회담이 열리지 못했고, 마지막 네 번째 회담은 남한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북한으로서는 올림픽 참가 요청을 한 1952년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열린 회담이었

37) 위의 자료, 19쪽.

으므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1) 1차 로잔 회담

남한 정부는 1차 로잔 회담(1963.1.24.)부터 체육회담에 깊숙이 개입해 회담 대응책을 마련하여 KOC 대표단에 전달하였다. 남한 정부는 “정부의 훈령이 있을 시는 이 노선에서 교섭을 진행할 것이나, 정부가 개입되어 있다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스포츠 정신에 비추어 순수한 체육 문제로 다룰 것임을 강조 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람”이라는 훈령을 전달하며 실제로는 정부가 개입하여 대표단을 관리하였다.³⁸⁾

북한도 이미 홍명희라는 내각 부수상이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IOC와 직접 문제를 풀어 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북한 당국의 개입을 상징했다. 북한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서 이 단일팀 구성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다.³⁹⁾

1차 로잔 회담에는 남북 각각 NOC 소속으로 구성된 5인의 대표들이 참석했고, 이 중에는 체육인들이 포함되었다. IOC에서는 오토마이어 사무총장 등 3인이 참석하여 IOC 주도로 회담을 진행했다. 이 회담에서 사회를 본 타히르(S. E. Mohammed Taher)는 단일팀 개념을 하나의 깃발, 하나의 국가(國歌), 한 명의 대표단장으로 구성된 팀으로 규정했다.⁴⁰⁾ 따라서 이 회담에서는 남과 북이 함께 부를 국가를 ‘아리랑’으로 대신하는 데 합의를 보았고, 대표 단장은 대표 선수가 많은 쪽에서 말

38) 위의 문서, 125~127쪽.

39) 김기수, “인민적 체육 정책의 생활력,” 『근로자』, 제4호 (1963년 2월 20일), 32쪽.

40) 최진환, “남북 스포츠 분단의 역사적 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승인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제59권 3호(2020), 9~10쪽.

기로 했다. 3시간 30분 동안 IOC 주제로 비교적 원만하게 회담이 진행되었고, 만찬까지 이어졌다. 단일팀 깃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튿날 북측 대표 김중항이 남측 대표 김진구에게 내일(26일) 만나서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남측 대표단은 26일에 바로 귀국하였다.

단일팀 깃발 문제를 놓고 남측은 태극기를 포기 못하는 입장이었고, 북측은 이때 처음으로 한반도 지도 가운데 오륜 마크를 넣은 모양을 제시했다. IOC는 오륜 마크를 중앙에 넣고 아래에 KOREA를 넣는 모양을 제시했다. 단일기를 놓고 보인 입장 차이는 세 주체가 지향하는 바를 분명하게 보여 줬다고 할 수 있다. 남측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북측은 한반도 지도를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대등한 관계로 단일팀을 구성해 보자는 입장이었으며, IOC는 올림픽 정신을 중심에 두고 KOREA라는 한 팀을 구성해 보자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국, 남측이 태극기를 강조하면서 올림픽 단일팀 깃발을 정하는 문제가 정통성 문제로 확대된 셈이었다.

2) 1차 홍콩 회담

1차 로잔 회담 이후 IOC가 제시한 도안으로 단일팀 기가 정해졌고, 1차 홍콩 회담(1963.5.17~6.1.)은 사전 접촉까지 포함하면 17일 동안 14차례의 만남이 있었다. 해방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남북만의 접촉지대라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1차 홍콩 회담은 IOC가 빠지고, 남북 당국을 대표하는 당사자끼리 만난 최초의 회담이었다. 남측에서는 군인 출신이며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맡은 이효가 단장으로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출신으로 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김기수가 단장으로 참석했다.

홍콩 회담 장소와 시간 등은 남측이 주도하여 정했다. 남한 정부는 북측 대표단이 홍콩 사증을 통해 15년 동안 숙원해 온 홍콩 입경의 전례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국 총영사관에 정식 비자를 발급해 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⁴¹⁾ 북측 대표단은 비자 발급이 늦어져 회담 시작 일에 맞춰 도착하지 못했다. 북한 대표단은 비자 발급 문제로 회담 시간에 늦었다고만 이해했지만,⁴²⁾ 실제로는 남측의 비자 발급 방해로 늦었던 것이다.

이 회담에 앞서 남한 정부는 북한이 남한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렬도 불사하는 강경한 입장으로 임하라고 주문하면서, 북한이 부동의할 경우 회담 결렬의 책임을 북한으로 돌릴 것 등의 내용을 담은 훈령을 KOC 대표들에게 전달하였다.⁴³⁾ 미 국무성에서는 이 회담으로 자칫 북한의 단독 참가가 국제사회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아 그들의 국기로 대외 활동을 하게 될 우려도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도 하였다.⁴⁴⁾ 따라서 북한의 독립팀 인정과 남북 단일팀 구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남한 정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남한 정부의 선택지 1순위는 남한 단독 참가였다. 단일팀 구성은 마지막 5순위였다.⁴⁵⁾ 남한 단독 참가 결과를 도출하려면 홍콩 회담에서 남한은 단일팀 구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북한 때문에 결렬되었다는 시나리오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과 단일팀 구성을 성사하기 위

41) 외교부, 1964년도 동경올림픽 남북한단일팀 구성문제, 전4권(V.3, 1963.5-6.), 10, 13, 14쪽.

42)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홍콩 도착,” 『로동신문』, 1963년 5월 17일.

43) 외교부, 1964년도 동경올림픽 남북한단일팀 구성문제, 전4권(V.3 1963.5-6.), 17쪽.

44) 외교부, 1964년도 동경올림픽 남북한단일팀 구성문제, 전4권(V.2 1963.1-4.), 123쪽.

45) 1. 남한 단독 참가 2. 쌍방 불참가 3. 남북 개별팀 참가 4. 북한 단독 참가 5. 단일팀 구성.

해 회담 내용과 형식 등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회담에 참여하였다. 회담에서 의제 제시 및 회담을 적극적으로 이끈 것은 북한이었고, 남한은 회담 전략에 따라 최대한 지연작전과 의제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회담 명칭’을 정하는 문제였다. 남측 대표는 회담 명칭에 ‘한’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글자로, 어떤 형태로든 명칭에 넣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전한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의’라고 제안했다. 반면, 북측 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올림픽위원회와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 간의 대표단 회의’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남과 북이 국가 대 국가의 대등한 관계로 회담을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서로를 존중해 주자는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IOC의 시각과도 일치했다. 회담 전, 오토마이어는 이효 단장에게 단일팀 구성은 두 대표단에 어떠한 차이도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강조하였다.⁴⁶⁾

그러나 남측 대표단은 ‘전한’ 또는 ‘남북한’을 넣어서 회담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고, 북측 대표단은 그렇다면 ‘조-한(한-조)’ 또는 ‘북남(남북)’ 올림픽대표단 회의로 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이미 회담 의제를 두고 나흘간 회담하고, 회담 명칭을 두고 다시 장시간 토론이 이어질 것이 예견되자 북측은 이를 우려해 더는 이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면서 회담 명칭 문제는 IOC에 회부해서 결정하자고 미루었다.⁴⁷⁾ 이것이 남한의 정통성 주장과 북한의 대등함 주장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었다.

회담 4일째 되는 5월 20일 밤, 남측 대표 이효는 개인 명의로 북측 대표단을 비방하는 성명을 언론에 발표했다. 『동아일보』 5월 21일 자

46) IOC, OSC, KOC D-RM01-CORES-002(1947~1963), 138.

47) IOC, OSC, Avery Brundage Collection, Film 77-11/ File number, 146-155.

신문에는 “북괴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고찰할 때 실무자 회담은 여러 가지 난관이 예상되나 우리는 IOC 현장 정신에 입각하여 동회담을 진전시키자는 결심에 변함이 없다.” “그들은 하등의 준비나 복안이 없을 뿐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 상징에 관계되는 호칭 문제에 있어서도 …… 대한민국 올림픽 위원회의 국제적인 지위와 권리를 무시하자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와 같은 내용이 실렸다.

비방 성명 배경에는 “아측이 무성의 하다는 인상은 절대 주지 말 것, 북괴 측의 수장의 부당성을 과감히 반박할 것, 우리 주장을 양보하지 말 것, 상대방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우리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이끌어 갈 것” 등을 주문한⁴⁸⁾ 남한의 훈령이 작동했다. 이효는 이러한 훈령에 따라 예정에 없던 개인 명의의 성명을 중간에 발표해 선제적으로 남한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선수 선발원칙, 예선전 장소, 훈련 문제, 임원 선정 문제 등 북측이 제안한 의제는 많았지만, 남측은 “허가가 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본론을 피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북측에서 홍콩 회담의 전 과정을 공개하자고 제안하며, “진실을 한국 국민과 세계 스포츠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임무이고 회담 나흘째 이효 부위원장의 비방 성명에 비추어 볼 때, 공개 절차는 정당하다”라고 주장하였으나,⁴⁹⁾ 남측의 반대로 공개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이 남측 대표단은 남한 정부의 의도대로 회담장 안팎에서 회담을 방해하고 지연하는 전략을 실행에 옮겼다. 반대로 북한 대표단은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단일팀 구성이라는 성과를 안고 돌아가

48) 위의 자료, File number, 146-155; Avery Brundage, Film 35-11/File number, 32-43.

49) IOC, OSC, Avery Brundage Collection, Film 77-11, 146-155.

려 했으나 17일 동안 거의 매일 만남을 가졌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성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다.

북측 대표 김기수는 귀국 후 『로동신문』을 통해 홍콩 회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했다. 그는 회담장 안에서 있었던 발언 내용이나 회담장 분위기 등을 실어 공개했다.⁵⁰⁾ 남측 대표단은 이 보고 기사를 벌미 삼아 북측이 1차 홍콩 회담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IOC 정신을 위반했고 KOC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차 홍콩 회담을 결렬로 이끈 구실을 만들어 갔다.⁵¹⁾

3) 2차 홍콩 회담

2차 홍콩 회담(1963.7.26.) 전에 KOC는 회장에 이효, 부회장에 황엽(군인 출신) 등이 임명되었다. 1947년부터 IOC와 소통을 이어 온 이상백과 월터 정은 KOC의 모든 직함을 내려놓게 되었다.⁵²⁾ 회담이 진행될수록 체육회담 대표단은 정부의 훈령을 잘 실행에 옮길 정부 인사로 대체되었다.

2차 홍콩 회담은 남측 대표단의 일방적 기자회견을 끝으로 결렬되었다.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약속된 회담에 앞서 남측 대표는 북측 대표의 사과와 김기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북측 대표단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오후에 다시 회담을 개최하자고 했으나 남측 대표단의 일방적 결렬 성명 발표와 함께 모든 체육회담은 끝이 났다.

50)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조선 유일팀 구성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로동신문』, 1963년 6월 11일.

51) IOC, OSC, Avery Brundage Collection, Film 77-07/ File number, 173-178.

52) 위의 자료, Film 35-11/ File number, 31.

남측이 결렬 이유로 제시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김기수의 허위 귀국 보고를 문제 삼았고, 다른 하나는 김기수가 도착 성명에 사용한 'National Union'이라는 표현이 정치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었다. 북측이 올림픽 참가를 구실로 남북이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회담을 이용했다는 주장이었다.

허무하게 시작도 못 하고 끝난 이 회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또한 남한 정부의 훈령이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남한 정부는 “북괴의 저의를 파악하여 이를 분쇄하여 아측 단독 출전의 계기를 마련, 북괴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단일팀 구성을 획책할 것을 고려하여 언제든지 결렬시킬 수 있는 보다 난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출 것”과 같은 훈령을 보냈다.⁵³⁾

IOC 문서에는 오전 10시 남과 북의 대표단이 마주한 자리에서 남측 대표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고, 회담 결렬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으며, 이에 북측 대표 서원준이 11시 30분에 퇴장하였고, 오후 3시에 다시 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안했지만, 남측 대표단은 이를 무시하고 회담 결렬 선언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모든 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었다고 기록되었다.⁵⁴⁾

외교부 공개 문서에는 회담 전날 “7월 25일 아 대표단은 최종적으로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북괴 대표 성명에 포함된 'National Union'이란 단어를 예의 검토 후 최초의 작전 방책인 김기수의 허위 귀국 보고와 함께 이 문제를 들고 들어가 회담을 결렬시키기로 함”⁵⁵⁾이라고 기록된

53) 외교부, 1964년도 동경올림픽 남북한단일팀 구성문제, 전5권 중 (V.5 1963.7-8), 28~29쪽.

54) IOC, OSC, Avery Brundage Collection, Film 77-07/File number, 173-178; IOC, OSC, PRK OSC List of Archives' Files: D-RM01-COREN/008, File number, 174.

55) 외교부, 1964년도 동경올림픽 남북한단일팀 구성문제, 전5권 중 (V.5 1963.7-8.),

것으로 보아 이미 회담을 결렬시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교부 문서에는 북측 대표단 고상준⁵⁶⁾이 이 회담의 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결렬하기로 결심을 굳혔다고 기록되어 있다. 단일팀 구성을 위해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왔다고 말한 것이 남측 대표단이 결렬을 결심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상준은 남측 대표단이 결렬을 선언한 오전, 심각한 표정으로 30분간 앉아 있었다고 한다.⁵⁷⁾ 이는 남한 정부의 훈령대로 작전하듯이 전개된 상황에서 북측 대표단의 대응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하다.

결국 IOC의 중재 없이 해방 후, 처음으로 남북 대표들만이 만난 접촉지대의 공간은 올림픽 단일팀 구성이라는 주제를 두고 협상을 성사시키려는 북측과 상대를 인정할 수 없는 남측의 마음 체계가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었다. 국제사회의 시각을 견지한 IOC는 이 회담에서 KOC는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회담을 저해했지만, DPRK NOC는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회담은 북한 NOC 승인의 발판이 되었다.

4) 2차 로잔 회담

2차 홍콩 회담이 파행으로 끝나자, 이를 보다 못한 IOC 위원장 브린디지는 다시 남과 북의 NOC 대표를 8월 19일 로잔으로 불러들여 나머지 협상을 이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남측 대표단은 회담 하루 전날인

66~67쪽.

56) 고상준은 1956년 민청 국제부장, 1961년부터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1963년부터 조선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57) 외교부, 1964년도 동경올림픽 남북한단일팀 구성문제, 전5권 중 (V,5 1963.7-8.), 63쪽.

18일에 브룬디지를 따로 만나 자신들에게는 어떤 권한도 없어서 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로잔을 떠났다. IOC 측은 북측 대표단과 만찬을 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⁵⁸⁾

이후에도 이효는 홍콩 회담의 결렬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IOC에 항변했지만, IOC 위원장 브룬디지를 포함한 IOC 내 인사들 사이에서는 남한 책임론이 중론이었다.⁵⁹⁾ 그 결과 1963년 10월 바덴바덴 IOC 총회에서 북한은 독립팀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공식 승인을 얻었다. 이로써 1964년 인스브루크 동계 올림픽과 도쿄 하계 올림픽에 참가 자격을 얻게 되었다.

4. 1963년 체육회담의 기원과 의미

1) 최초의 남북 접촉시대 형성

해방 후, 처음으로 남북의 대표들이 만난 1963년 남북 체육회담은 제도화된 접촉시대에서 남북의 마음체계가 작동한 첫 회담이었다. 이 회담은 전쟁 후 남북의 심리적 화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IOC라는 국제사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이 체육회담은 준비 단계부터 정부가 깊숙이 개입해 진행한 회담이었다. 회담의 시작은 1963년 1월이었으나, 1957년 북한의 홍명희가 남한의 이기붕에게 서신을 보낸 때부터 회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5년 이상 줄다리기를 끝에 성사된 회담이었다. 단일

58) IOC, OSC, Avery Brundage Collection, Film 77-11/File number, 128-130.

59) 위의 자료, File number, 168; Film 77-07/File number, 155.

팀 구성과 관련해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와 남한의 방어적인 태도가 부딪힌 회담이라는 특징이 있다.

1, 2차 홍콩 회담은 남북 대표들만 만난 첫 회담으로, 남측 대표는 군사 정부 차원에서 기용해 훈령에 따라 정부 입장을 잘 대변할 인사들이 KOC의 직책을 맡아 참석했다. 북측 대표는 조선로동당 차원에서 기용한 인사들로 볼 수 있다. 남북 모두 표면적으로는 KOC와 DPRK NOC 소속 체육인들이 만나는 회담이었으나, 실상은 정부의 주요 고위직 인사가 회담을 대비해 오랫동안 IOC와 접촉을 해 왔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응한 회담이었다. 북한은 회담 장소로 판문점과 평양 또는 서울을 제시했으나, 남한에서 이를 거절해 IOC의 제안에 따라 제3국인 홍콩에서 남북만의 첫 접촉지대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1, 2차 홍콩 회담은 비록 제3국에서 이루어졌지만, 분단 이후 IOC의 중재 없이 최초로 남북 대표 회담을 성사시킨, 접촉지대 기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남북의 마음체계

1950~1960년대는 남과 북에 DMZ를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과 적대적 행위가 항상 존재했던 첨예한 대결의 시대였다. 북한도 처음에는 DMZ가 놓여 있는 현실에서 단일팀 구성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국제사회진출이라는 목표와 함께 북한 체육인들의 올림픽 참가 열망이 컸기 때문에 당국 차원에서 IOC와 접촉을 시도하였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권리를 확보해 주고자 노력한 IOC는 남북이 정치 영역을 벗어나 체육 영역에서 순수한 만남을 갖기를 기대했으나, 남한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였다.

KOC는 북한과 함께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었지

만, 북한을 배척하면서 불가피하게 북한과의 단일팀 구성이라는 이슈에 봉착했다. 북한은 남북이 대등한 관계로 단일팀을 구성하기를 바랐고, IOC도 같은 생각으로 회답을 지지했었다. 하지만 남한 정부는 KOC의 정통성을 곧 국가 정체성으로 판단하고, 단일팀 깃발 문제와 회답 명칭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남한 정부는 1963년 체육회담을 대등한 관계로 단일팀을 구성해 국제사회로 진출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담긴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인식했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과 동격으로 취급받는 전례를 남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고민이 있었다.⁶⁰⁾ 그러므로 1963년 체육회담은 어떻게든 국제사회에 대등한 관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북한의 마음체계와 KOC의 정통성을 지키며 북한의 진출을 막으려는 남한의 마음체계가 대립하며 갈등한 회답이었다.

1947년 이후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권한이 KOC에 있었지만, 단일팀 구성 회답을 결렬시킴으로써 KOC는 남한만의 NOC로 남게 되었고, 북한은 독립 NOC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종교적, 정치적, 인종적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올림픽 정신이 남북의 정치적 갈등과 체제 대결이라는 냉전 상황을 뛰어넘는 명분으로 작용해,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3) 제도적 접촉 지대의 공간적 의미

남북 대표단이 만나는 접촉지대라는 공간에서 미세하게 교감하는 감정과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기록에 나타난 행간에 주목하였다. 우선 1차 로잔 회담에서 남북의 대표들은 국가(國歌) 결정 문제를 놓고 남

60) 외교부, 1964년도 동경올림픽 남북한단일팀 구성문제, 전4권 (V.2 1963.1-4), 119쪽.

북의 애국가를 반반씩 부르는 안이 나오기도 했으나, 곧 우리의 민요 ‘아리랑’으로 합의했다. 단일팀 구성 요소(국가, 국기, 대표) 중 가장 빠르게 동의했던 부분이다. 대표단은 회담 현장에서 ‘아리랑’에 담긴 민족적 정서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었고, 분단 이전 하나의 공간적 상황에 대한 그리움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회담장 밖의 여론을 보면 ‘아리랑’을 시상대에서 부르면 좀 해괴하게 느낄 수도 있다면서, 그 결정에 부정적인 이견도 있었다.⁶¹⁾

이렇게 회담 공간과 회담 공간 밖에서 보는 시각은 분명 다를 수 있다. 직접 만나 형성된 공감대는 외부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양측 대표단이 ‘아리랑’이라는 민요를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 즉, 즉흥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결정한 것이다. 이처럼 회담 대표들에게 전달된 당국의 훈령이나 지침에 자율성을 확대한다면 그 자체로 공동의 이익에 우선하는 창의적인 의사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1차 로잔 회담을 마치고 남한의 한 언론은 회담 당시 있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우리 대표인 손기정씨가 1936년 『베를린』에서 자기 나라의 기를 가슴에 달지 못하고 뛰지 않으면 안됐던 쓰라린 경험을 설명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국기가 아닌 다른 것을 달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북괴 대표들도 잠잠하면서 아무 대꾸도 못하였다.”⁶²⁾

위 내용에서 당시 단일팀 깃발 문제는 어느 한쪽의 국기를 선택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지만, 일제 강점기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뛰었던 나라 잃은 경험은 남북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

61) “형설수설,” 『동아일보』, 1963년 1월 26일.

62) “단일팀 협상비화,” 『경향신문』, 1963년 2월 2일.

다. 그리고 양측 대표단 모두에게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흘렀던 상황을 상상해 보게 된다.

1차 홍콩 회담을 마치고 북한의 『로동신문』에서는 회담 장면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보고자(김기수)는 특히 남조선 측이 최종 회담 시에 자기들이 회담 《준비》를 잘못된 사실을 미안하다고 하였으며 유일팀 구성 문제는 그 누구도 파탄시킬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앞으로의 노력을 믿어 달라고 말한 사실과. ……”⁶³⁾

위 내용은 회담 과정에서 대표자들이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 누구도 파탄시킬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과 미안하다는 고백이 단 일팀 구성을 반대해 온 남측 대표의 말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어쩔 수 없이 훈령대로 움직이는 회담 대표의 고뇌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2차 홍콩 회담은 시작도 못 해 보고 끝났다. 외교부 문서는 북측 대표 고상준이 모든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자, 남측 대표는 이를 구실로 회담 결렬을 선언한 상황을 기록하면서 고상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30분간 앉아 있었다고 했다. 당시 고상준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상상해 보게 된다. 훗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은 다시 남북 체육회담을 제안하면서 “과거는 어쨌든지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고”⁶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다시 체육회담을 제안했다. 접촉지대에서 벌어진 갈등과 아픔을 딛고 새로운 마음의 지층을 형성하는 장면이다.

남북 체육회담에는 각 정부 측의 입장과 훈령에 따라 회담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제도적으

63)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조선 유일팀 구성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로동신문』, 1963년 6월 13일.

64) “북과 남의 체육인들은 제22차국제올림픽대회에 공동체육단을 무어 민족유일팀으로 출전하자,” 『로동신문』, 1979년 12월 20일.

로 마련된 접촉지대라는 한 공간에서 비록 간헐적이라 해도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미세한 마음의 지층이 쌓여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체계로 재구성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남북 체육회담의 원형이 된 ‘단일팀’ 문제

북한은 1964년 인스브루크와 도쿄 올림픽에 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없을 경우 독립적인 팀으로 나갈 수 있다는 IOC 결정을 알고 있었음에도,⁶⁵⁾ 1963년 단일팀 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52년부터 IOC와 시작된 접촉으로 국제사회 진출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했던 북한은 ‘단일팀’이라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것은 분단 극복을 위해 하나의 민족임을 내세워 통일에 다가설 수 있는 수단이자 명분이었다. 남이나 북이나 정치, 군사 문제가 아닌 순수한 의미에서 ‘단일팀’ 구성을 통해 통일 국가를 꿈꾸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명분으로 부인하기 힘든 소재였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1956년부터 단일팀 구성이라는 이슈를 선점해 주도적으로 제기하였고, 남한은 그 주도권을 빼앗겨 늘 수세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고, 우수한 체육인들이 많았던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단일팀 이슈에 대해 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한 측면도 있다. 또한, 1970년대 들어 ‘두개 조선’ 반대라는 북한의 통일전략에 비추어 볼 때 단일팀 구성은 유의미한 수단이었고,

65) IOC, OSC, PRK OSC List of Archives' Files: D-RM01-COREN/008, File number, 120.

1972년 체육회담 제의, 1979년 체육회담, 1980년과 1983년 그리고 1985년과 1990년으로 이어지는 모든 체육회담에서 북한은 주도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회담 전략에서도 북한은 현실 문제보다는 명분만을 강조하는 방식을 택한 반면, 남한은 주로 지연과 어려운 의제 제시 등으로 결렬 방식을 택했다. 1991년 이후부터 국제 정세의 변화와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에 따라 북한의 태도가 바뀌면서 북한은 남한과의 단일팀 논쟁을 더는 주도하지 않았다. 단일팀 구성은 더는 매력적인 소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⁶⁶⁾ 북한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일 때에도 단일팀 구성을 반기지 않았다. 북한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국면 전환을 위해 어설픈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지만, 실상은 남이나 북에 단일팀 구성은 명분에서 좋은 소재였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운 소재가 되었다.

5. 결론

1963년 로잔, 홍콩 회담은 단 몇 달 준비해서 이뤄진 회담이 아니다. 북한은 1952년 IOC의 문을 처음 두드린 이후 10년 동안 올림픽 참가를 위해 노력해 왔다. KOC와 단일팀 구성이 필요했던 북한은 단일팀 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남한에 대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남한의 외면으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IOC가 더는 남한 편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올림픽 정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남북의 만남을 견인한 결과가 1963년 1월 로잔 회담이었

66) 최진환, “1991년 남북 단일팀 성사와 단절에 관한 고찰,” 『국가전략』, 제28권 1호, 171쪽.

다. 이렇게 성사된 1, 2차 홍콩 회담은 IOC가 빠지고 외형상 남북의 NOC 대표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으나, 실제로는 양측 정부를 대표한 남북 최초 당국자 회담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북한 체육인들의 올림픽 참가 열망과 ‘국가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북한 정부의 간절함이 IOC 내에서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반대로 남한은 전쟁 발발의 당사자인 북한과 마주 앉아 단일팀을 논하기에는 혐오와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간절함과 혐오 사이의 간극이 있음에도 남북은 ‘단일팀’ 구성이 지닌 명분을 외면할 수 없었다.

제도화된 공간에서 남북 당사자끼리 처음 만난 접촉지대가 1963년에 열린 체육회담이었다. 남과 북의 서로 다른 마음체계가 회담 공간에서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였다. 남측은 북측의 비자 발급 방해, 회담 지연 및 난제 제시, 여론 선점 등의 전략을 구사했고, 북측은 남측의 회담 결렬 선언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담 날짜를 잡고 접촉을 이어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1963년 체육회담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그 결렬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하거나,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양비론적 해석이 주를 이뤘다. 과거 관 주도의 정보 제공이 편향된 판단을 하도록 한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분단체제하의 제한된 정보는 여전히 주관적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과거 사료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회담의 사실관계에서 당시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북은 선한 의지가 있지만, 남은 그렇지 않았다⁶⁷⁾고 판단한 IOC 시각은 기존 관념을 뒤집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남과 북은 그저 분단된 대등한 국가였을 뿐이었다. 한 쪽은 미국의 영향 아래 있고, 한 쪽은 소련의 영향 아래 있는 분단국인

67) IOC, OSC, Avery Brundage Collection, Film 77-06/File number, 20.

데 왜 남한만 특별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했다. ‘북은 악이고 남은 선이다’라는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더 객관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요구된다.

2023년부터 북한은 선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여 남한을 호명했다. 이미 1957년에 국제사회 진출을 꿈꾸던 시점부터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와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라는 국호가 달린 호칭을 사용하면서, 남과 북이 국가 대 국가의 대등한 관계임을 국제 사회를 향해 주장했다. 1990년대 초반 북한이 잠시 남북의 특수 관계를 주장하다가 다시 대등한 국가 대 국가로 남북을 호명한 것은 그 역사가 짧지 않은, 오래된 북한의 마음체계가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남북의 모든 교류와 회담 그리고 마음이 맞는 접촉지대에서 각각의 마음체계는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를 적립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남한은 과거부터 단일팀보다는 개별 팀을 선호했기 때문이고, 북한도 언제부터인가 단일팀보다는 개별 팀이 마음 편하다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제도화된 남북 회담이라는 접촉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역사적 흐름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통합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제이다.

■ 투고: 2024.04.30. / 수정: 2024.07.31. / 채택: 2024.08.02.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조남훈, 『조선체육사 2』(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2).

2) 논문

김기수, “인민적 체육 정책의 생활력,” 『근로자』, 제4호(1963).

3) 신문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홍콩 도착,” 『로동신문』, 1963년 5월 17일.

“남북 조선 올림픽 위원회를 연합하여 유일한 조선팀을 구성하자: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올림픽 위원회에 제의,” 『로동신문』, 1957년 6월 11일.

“남북 조선 유일팀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에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 전문,” 『로동신문』, 1962년 9월 6일.

“북과 남의 체육인들은 제22차국제올림픽대회에 공동체육단을 무어 민족유일팀으로 출전하자,” 『로동신문』, 1979년 12월 20일.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조선 유일팀 구성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로동신문』, 1963년 6월 11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 『로동신문』, 1957년 12월 19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김연철, 『70년의 대화』(파주: 창비, 2018).

E. H. 카(E. H. Carr), 『역사란 무엇인가』, 김택현 옮김(서울: 까치글방, 2011).

2) 논문

강혜경, “‘남북대화’ 원형으로서의 19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09호(2021), 287~331쪽.

- 김재우, “동경올림픽대회(1964)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1차 홍콩 체육회담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2권 4호(2013), 17~33쪽.
- 윤철기·양문수, “북한 연구의 미시적 접근과 남북 접촉지대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6권 2호(2013), 251~280쪽.
- 이우영·구갑우, “남북한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이론,” 『현대북한연구』, 제19권 1호(2016), 269~310쪽.
- 정기웅, “남북대화 연구,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분석 틀 구축을 위한 시론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제26권 1호(2022), 141~172쪽.
- 정연철, “1954년 제네바 회담과 동북아 냉전질서,” 『아세아연구』, 제54권 1호(2011), 192~219쪽.
- 정우근, “남북회담 50년 소고: 현황과 발전방향,” 『통일문제연구』, 제33권 2호(2021), 39~73쪽.
- 최진환, “남북 스포츠 분단의 역사적 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승인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제59권 3호(2020), 1~20쪽.
- _____, “1991년 남북 단일팀 성사와 단절에 관한 고찰: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 대회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8권 1호(2022), 171~201쪽.

3) 신문

- “단일팀 협상비화,” 『경향신문』, 1963년 2월 2일.
-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3년 1월 26일.

4) 기타 자료

- 외교부, 1964년도 동경올림픽 남북한단일팀 구성문제, 전4권(V.1 1962).
- _____, 1964년도 동경올림픽 남북한단일팀 구성문제, 전4권(V.2 1963.1~4.).
- _____, 1964년도 동경올림픽 남북한단일팀 구성문제, 전4권(V.3 1963.5~6.).
- _____, 1964년도 동경올림픽 남북한단일팀 구성문제, 전5권 중 (V.5 1963.7~8.).
-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https://dialogue.unikorea.go.kr>(검색일: 2024년 4월 10일).

3. 국외 자료

1) 기타 자료

- IOC, OSC, Avery Brundage Collection, Film 35-10.

_____, Film 11.

_____, Film 77-06.

_____, Film 77-07.

_____, Film 77-11.

IOC, OSC, KOC D-RM01-CORES-002(1947-1963).

IOC, OSC, PRK OSC List of Archives' Files: D-RM01-COREN/008.

IOC, OSC, Hard disk, "Session," 1957-Bulgaria/02-Proces-verbal-eng.pdf.

_____, "Session," 1963-Baden-Baden/02-Proces-verbal-eng.pdf.

A Review of the 1963 Sports Talks as the Origin of the Inter-Korean Contact Zone

Choi, Jin Hwan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e 1963 inter-Korean sports talks in Lausanne, Switzerland and Hong Kong were the first contact zone after the division of Korea where the two Koreas officially met in an institutionalized venue, yet their meaning has not been addressed in existing studies of mindfulness. This study examines the origins and meaning of the institutionalized North-South contact zone by analyzing in detail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e 1963 talks via examination of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correspondence and foreign ministry documents of that time. While the 1963 talks were ostensibly a meeting between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s (NOCs) of the two Koreas, the talks were actually the first contact zone between high-level officials of the two Koreas, who controlled the delegations through government orders. It presented a clash of minds between the North's desire to form a single team and the South's desire to sabotage this, regardless of the original intention of bringing about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integration through the contact zone of inter-Korean dialogue. However, the talks

are significant as the origin of the first contact zone between the two
Koreas and historically significant because the talks formed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a single team.

Keywords: contact zone, mind unity, mind system, sports talks, KOC,
DPRK NOC, single team